

# 중국 대학생의 위험감수성과 성격5요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문개풍  
우송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김문홍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 The Influence of Risk-Taking Propensit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aifeng Wen<sup>a</sup>, Moon-Hong Kim<sup>b</sup>

<sup>a</sup>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 Department of Railroad Management,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3, Revised 18 March 2023, Accepted 25 March 2023

### Abstract

**Purpose** - Due to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companies have reduced their hiring needs in the short term, reduc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ost university students and putting pressure on their employment since 2019. This study aims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options an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trepreneurship.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a research survey is conducted on 4-yea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receiv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urses, and statistical tests a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3.3 model 1.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effects of risk perception and five personality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moder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Finding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risk perception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ive personality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pport ha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uch results imply that university students gain information and knowledge related to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pport, which leads to positive perceptions and motivation towards entrepreneurship.

**Keywords:** Risk-Taking Propensit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education

**JEL Classifications:** A14, A22, A30

\* 이 논문은 2023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sup>a</sup> First Author, E-mail: wenkaifeng@naver.com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mhkim@wsu.ac.kr

© 2023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금 막 졸업한 대학생의 취업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각 나라의 경제 부진, 장기적인 일자리 부족 그리고 경제난의 가속화 속에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문제는 줄곧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단기간에 기업은 학생 채용 수요를 줄여 대학생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취업 스트레스를 가져다줄 것이다 (Park and Jeon, 2021).

중국 국가통계국(2022.6)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신규 고용 수요는 529만 명이다. 5월 전국 도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은 5.9%로 4월보다 0.2% 감소하였다. 현지 주민 실업률은 5.5%, 외래인구 및 유동인구 실업률이 6.6%를 차지했다. 5월 16-24세의 실업률은 18.4%로 지난달대비 0.2% 증가하여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24세 사이에 주로 취업이 필요한 분류는 대졸자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일후이재(日暉在) 통계청 대변인은 6월 15일 국민경제 브리핑에서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문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2022년 대졸자가 1076만 명에 달해 졸업 시즌을 맞아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취업 압력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조기은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창업 관련 다양 한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취업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은 대학생 취업난에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추진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된다(Park, 2020). 창업을 활성화해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하며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창업의지는 창업 행동을 수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ouitaris, et al., 2007). 이에 따라 최근 국가와 정부는 창업에 관한 태도, 사상, 교육 형태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일련의 사회문제: 불안정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애매모호함(Ambiguity)등, 즉 우리는 지금 VUCA World에 처하고 있다(Vuca - World, 2021).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은 보수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상황에서 창업은 대학생들의 새로운 진로로 삼아 이러한 상황을 완화했다(Hyuk and Im, 2020). 또 창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Han, 2007).

대학생의 창업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 혁신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Park, 2020). 국무원 판공청(2021.10.13) '대학생의 혁신 및 창업능력을 더욱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 의하면 대학생의 혁신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학생의 혁신 창업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창업행위만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창업 활성화 정책은 대학 재학 중에도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Lee and Ahn, 2018). 이와 같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실패 관련 가장 큰 원인은 창업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창업역량을 높이는 것은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Chandler and Jansen, 1992; Lee and Ahn, 2018).

## 2. 연구의 차별성

대학생은 창업 실패 위험이 높기에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Zhao and Seibert(2006)의 성격특성과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창업의도는 학생들의 성격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검증했다. 또한 대학생의 성격요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가 존재했다(Baek, 2018). 기존 문헌에서는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구체적인 성격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반영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위험 감각과 성격특성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험 감각과 성격특성은 창업의도와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의 대한 열정과 미래 창업의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창업교육이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위험감수성은 독립변수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 대학생의 성격요인은 독립변수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대학생의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고 위험감수성은 독립변수 관계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넷째, 중국 대학생의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고 성격요인은 독립변수 관계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 창업교육의 영향,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인지한 창업교육 지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직업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재로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 II. 이론적인 배경

### 1.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기업가정신이란 혁신과 창업 측면에서 조직의 재탄생 과정과 관련된 요인이다. Knight (1921)는 기업가 정신을 이윤추구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의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Drucker (1985)는 기업가 정의는 세대의 변화를 찾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잠재적인 기회를 탐색 및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Kirzner (1973)은 기업가에 대한 정의는 일반사람보다 기회에 대하여 발견하는 기민성(alertness)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Covin and Slevin (1986)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진취성(Proactiveness)의 3가지 주요 개념으로 나누었다.

많은 학자들이 위험감수성의 정의와 해석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중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의 정의라고 생각하며 (Miller, 1983; Gurol and Atsan, 2006)은 위험감수성이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거나 다른 위험 요소를 감내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람의 경향을 지적했다. Ha (2011)는 위험감수성이 위험부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가치를 기대하며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는 과정의 창업자의 행동특성으로 정의한다. 위험감수성의 특징은 위험 특성과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중의 심리적 공황에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본적으로 위험감수성의 인지과정은 인지, 사유와 응용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는 기회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인식이나 사고방식 등 독특한 기업가적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Mitchell and Denis, 2003). 특히 위험 감수성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찾는 행동을 말했다(Kuratko and Hodgetts, 2007).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Yoo, 2015).

## 2. 성격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

성격(personality)은 고대 그리스 시대 ‘persona’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연극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 한 데서 유래되었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위험감수성, 통제 요인, 성취 욕구 및 동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기업가적 성향 또한 살펴볼 수 있다.(Gartner, 1990; Miner et al., 1994, Goldberg, 1990) 연구자들은 보통 사람의 성격은 5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CEAN을 제시하였다.

성격의 5 요인 중 개방성(openness)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상력, 창조성이다. 개방성 성격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도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도전하여 자기개발 균형을 높게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해 더 높은 집중력을 갖는다(Cho and Yang, 2022).

외향성(extraversion)의 대표적인 특징은 열정, 과감함이다. 외향성 성격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기며,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과 편하게 지내고 자기주장도 능숙하며 대인관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Cho and Yang, 2022).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성격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회 규칙, 규범, 원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ho and Yang, 2022). 이러한 성격은 창업 초기에 창업자가 거의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창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성격 특성 중 하나이다.(Zhao and Seibert, 2006).

친화성 (Agreeableness) 성격의 대표적인 특징은 신뢰성, 친절, 배려 등이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으로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창업 환경에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격 중 하나이다.(Zhao and Seibert, 2006).

신경성(Neuroticism) 성격의 대표적인 특징은 불안, 적대감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불안정한 성격이다(Zhao and Seibert, 2006). Little(2014)은 신경성이 민감할수록 주변 상황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외부 자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 3.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Ajzen(1991)은 창업의도란 계획된 행동에서 선행되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란 창업행위에 대해 전개할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업에 대한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우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일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창업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이나 조직체의 시작으로, 창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러한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Lee and Kang, 2015). 그리고 창업행동의 선택 대안은 행동 중 상대적으로 행동성향과 높은 신뢰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때 신뢰성은 가치가 있고 현실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창업 태도 발생을 위해서는 존재할 창업 가능성과 이후의 행동 성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업의도를 통해 잠재적 창업가 집단의 창업 여부에 대한 일종의 주관적 태도, 창업 활동에 대한 선행 조건, 창업 행동의 예측효과 등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창업의도는 당장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언젠가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기에 창업

실행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행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Bird(1988)는 창업 시간에 따라 보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과 시점에서 볼 때 창업의도는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게 되며, 창업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 의도는 잠재적 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하거나 창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대한 개인의 의지의 정도라고 지적했다(Yoon, 2004). 이러한 선행연구는 창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기업윤리와 이념,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경영자원의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창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단체에 먼저 창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지려면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업 실천에 수반되는 모든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 4.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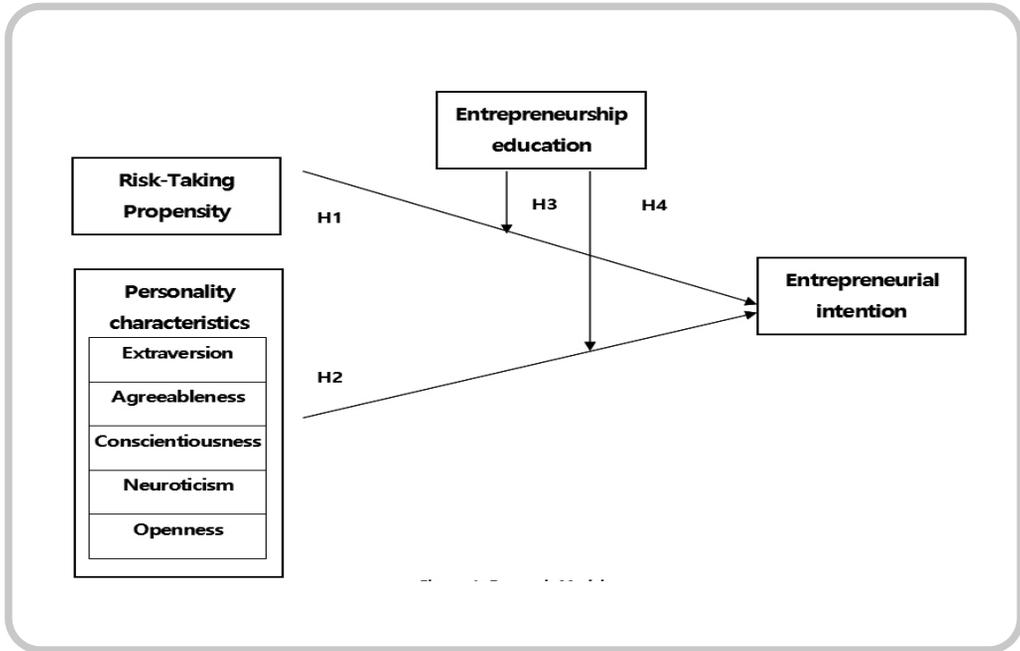
Kim (2021)은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가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대학의 지원이며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 지원의 방식으로 창업의지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핵심 요소로 정의하였다. 대학교 창업교육 지원의 정의에서 창업교육은 직접지원, 실습활동 및 멘토링 등 교육지원 정책을 간접창업교육지원으로 구분한다(Park, 2017). 대학 창업교육의 지원으로 학생의 창업가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의가 있으며 이는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에 필요한 역량과 기업가정신 개발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backere and Veugelers, 2005). Kraaijenbrink et al., (2010) 등의 학자들은 대학생이 창업교육지원의 효과를 통하여 창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문헌이 주장하는 관점은 창업교육 지원의 정당성에 대해 학자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관련 지원이 학생들에게 창업 동기를 가져다줄 수 있고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지식 등 획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창업에 대한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Henderson and Robertson 2000). 창업교육 지원의 정의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지원 방식으로 창업의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핵심요소로 정의하였다(Kim,2021).

### III. 연구방법론

#### 1. 연구모형

본고는 중국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포함된 위험감수성과 성격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지원은 조절변수로 두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상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2.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의 가설도출

Kim (2012)은 창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위험감수성향은 투자하거나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자의 창업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Yoo, 2015). Choi et al., (2017)는 심리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정신에서 위험감수성, 혁신성, 자기효능감 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g and Hong (2000)은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창업의도는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런 태도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rockhaus (198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긴급 상황을 겪을 때 안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위험감수성이 낮은 사람보다 높다. 높은 수준의 위험감수성이나 불확실성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창업을 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Slater and Narver, 1994),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창업에 대한 중요한 선행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Hult and Ketchen, 2001). 즉,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위험감수를 핵심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위험감수성이 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Yoo, 2015), 이와 같은 논리로 위험감수성이 높은 경우는 창업동기에 대한 유의미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hn et al., 2013) 동시에 많은 학자는 위험감수성에 대한 정의는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hn et al., 2013; Kim, 2018; Yang,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위험감수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성격특성과 창업의도의 가설도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인 기업가적 성향을 위험감수성향이나 통제소재, 성취욕구 및 동기 등으로 살펴보았다(Miner et al., 1994). 개인 성격을 통한 측정결과가 창업의도에 대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성격특성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Zhao and Seibert, 2006). 성격특성의 기존 이론은 모든 사람을 개인 자신의 행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요인은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으로 나뉜다. 다양한 성격특성과 창업의도와와의 연관성을 보면 성실성은 목표달성을 위해 규범이나 규칙을 정하면서 일을 꾸준히 준수하고 완성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체계성, 근면성, 시간 준수, 믿음직함, 끈기, 의지 등으로 나타났다. 성격별 특성과 창업의도와와의 연관성을 보면 성실성 경향을 갖추는 사람의 표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규범이나 규칙을 꾸준히 준수하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일은 어떻게든 완수해야 하는 특성이다.

성실성 특성은 주로 체계적으로 근무나 학습에 대한 태도, 약속 및 시간 등을 잘 지키고 믿음직함, 끈기, 의지 등으로 표현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새로운 생각을 접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경험에 미치는 성향이다. 이와 관련된 성격특성의 주된 표현 경향은 상상력, 자율성, 관례에 따르지 않음, 혁신성, 호기심,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창업 기회를 맞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으려 할 때 나타나는 창업과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성격 특성이다. 또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특성이다(Chung and Park, 2010). 주로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 사교성, 긍정적, 자기 주장성, 주도성, 집단적 성향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친화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심으로 표현되며,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하고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성향이다. 주로 표현은 신뢰, 우호, 친절, 배려, 순종, 관용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창업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을 때 창업의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sup>1)</sup>은 신경증의 반대편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경향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불안, 적대감, 부정, 감정의 변동, 감각의 부적절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 초기에는 창업자가 거의 모든 관련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고, 그 외 창업자는 다양한 성격특성을 갖추어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창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이라고 지적했다(Zhao and Seibert, 2006). 기존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연구가 있고,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는 효능감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Chung and Chae, 2016). 인성 심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성검사를 분석하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성격의 5요인 중에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성격의 5요인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Zhao et al, 2010). 이와 같은 논리의 연구는 다른 학자가 심리적으로 성장환경을,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연구하고 성격의 5요인이 창업의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격의 5요인이 대부분 조절의 효과를 주었지만 모두 조절적 역할을 하는 요인은 외향성과 친화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는 기업가정신과 성장환경 외에도 학생 개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Baek, 2018). 또한 Ko (2019)는 성격의 5요인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외향성과 개방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일반적으로 성격특성 요인 중 하나는 신경증(Neuroticism)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다른 요인과 방향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 변경한다.

- H2:** 성격요인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외향성 성격특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친화성 성격특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성실성 성격특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신경증 성격특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5:** 개방성 성격특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가설도출

Izedonmi and Okafor (2010)은 창업교육이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대학생 창업교육의 유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또한 창업 교육과 대학생의 창업 의도 사이에 긍정적이고 현저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Lee and Lee, 2015). Park (2018)은 창업 프로그램과 경영형 창업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창업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창업교육이 위험감수성, 성격요인 사이에서 조절변수의 기능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창업지원은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교육지원이며, 일부 학자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문헌이 있다(Kim and Kim, 2012). 창업교육지원의 정책을 통해 창업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요인으로 관계적 지원,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만큼 이 세 요인을 고취하거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은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Kim et al, 2015).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Yang (2016)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이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아 창업의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의 효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받고 있는 창업교육이나 지원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를 지각하고 있는지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 and Yang (2018)은 창업지원정책은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위험 감수성이 조절변수로 활용될 때, 높은 수준의 창업교육은 높은 수준의 위험감수성을 조절하여 학생들의 창업의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H3:**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격의 특징은 성취욕구, 내재적 통제위, 위험감수성향, 인내심, 절제심, 자기확신성, 자율성, 독립성, 적극성 등을 포함한다(Lee, 2013). Kuttim (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창업교육의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하였고, 창업의지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해 투입하는 정책이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을 개발하며 물론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학업을 마친 대학생들에게까지 다양한 취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격 특성에 따라 창업의도 결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Zhao et al, 2010) 대학생의 창업의도가 창업교육의 기대성과 및 성격 5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Oh and Park, 2021). Lim (2017)은 대학생 창업 여부를 결정하기에 필요한 혁신성, 위험감수성은 낮으나 창업을 한 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은 갖추고 있어 적합한 창업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창업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enderson and Robertson (2000)은 창업교육을 통한 프로그램과 창업에 관련한 지원들은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습득과 다양한 지식 등 자원들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창업가는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고 창업의도를 더 증가할 수 있기에 창업교육이 필요하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onstadt, 1986) 창업교육은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실패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창업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Kirzner, 1997). 이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립하였다.

- H4:**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외향성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친화성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성실성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신경증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H4-5:** 창업교육은 중국대학생의 개방성 성격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정(+)의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자료수집

연구의 정확히 진행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추출과정을 통한 위험감수성과 성격특성을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 정도를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1부 (17.2%)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53부(82.8%) 유의한 설문지를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측정항목의 타당도, 신뢰도가 권장기준 이상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선문지의 적합성과 문장의 이해 등을 고려한 뒤 설문 문항을 재검토 및 수정하였다. 최종 표본은 2022년 6월~9월 기간 중국 경내 있는 재학 대학생은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조사 사이트는 <https://www.wenjuan.com>을 중국어 설문지를 실시하여 총 550부를 배포하여 42부 (7.6%)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508부(92.4%) 유효한 설문지를 획득했다. 또한, 대량 사회과학에서는 표본 집단의 수가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지적했다(Chung and Park, 2010 Kim and Yang, 2018, Kim et al. 2015).

본 연구의 분석 도구로는 SPSS 26.0, PROCESS 3.3 모델 1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항목의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집중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위험감수성 5항목, 성격요인 5요인 총 28개 항목 중 적합하지 않은 3 항목을 제외하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각각 5개의 독립된요인으로 적제되었다. 창업의도와 창업교육 각각 5항목으로 구성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정된 가설검정에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며 각각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및 영향 정도를 알고자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여 마지막은 조절변수의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조절변수 회귀분석을 했으며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한 중국 대학생 인구통계학적 특성 추출과정은 <Table 1> 과 같다. 전체 응답자 성별은 남학생은

247명(48.6%)이며 여학생은 261명(51.4%)으로 나타났다. 조사 학생이 있는 지역은 중국 남쪽 326명(64.2%)이며 북쪽은 182명(35.8%)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은 1학년 93명(18.3%), 2학년 132명(26.0%), 3학년 164명(32.3%), 4학년 119명(23.4%)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중국 대학생 전공은 경제학 131명(25.8%), 이공학 125명(24.6%), 인문학과 116명(22.8%), 자연과학 81명(15.9%), 예체능 45명(8.9%) 및 다른 전공 1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이유는 148명(29.1%)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107명(21.1%)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 92명(18.1%)은 다른 사람이 추천하기 때문에 수강하며 시간표 때문에 이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른 이유는 65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문제는 미래 창업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래 창업의도를 조사하였다. 287명(56.5%) 학생은 우선 직장에 가고 창업을 고려할 것이며 146명(28.7%) 학생은 창업은 하겠다고 응답했는데 65명(12.8%)은 안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진로 고려하는 학생은 1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 = 508)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 Frequency | Percentage (%) |
|--|--|-----------|----------------|
| Gender                                     | Male   | 247       | 48.6           |
|  | Female   | 261       | 51.4           |
| Grade                                      | Freshman   | 93        | 18.3           |
|  | Sophomore  | 132       | 26.0           |
|  | Junior   | 164       | 32.3           |
|  | Senior   | 119       | 23.4           |
| Major                                      | In science and engineering                             | 125       | 24.6           |
|  | Economic   | 131       | 25.8           |
|  | Humanities   | 116       | 22.8           |
|  | Natural sciences                                       | 81        | 15.9           |
|  | Art, Sports  | 45        | 8.9            |
|  | Other  | 10        | 2.0            |
| Why I'm taking entrepreneurship course?    | I care about entrepreneurship                          | 107       | 21.1           |
|  | Get credits  | 148       | 29.1           |
|  | Others recommend                                       | 96        | 18.9           |
|  | Prepare for starting your own business                 | 92        | 18.1           |
|  | Time reason  | 50        | 9.8            |
|  | other  | 15        | 3.0            |
| Whether to start a business in the future? | Yes  | 287       | 56.5           |
|  | No   | 65        | 12.8           |
|  | Consider starting a business after leave the workforce | 146       | 28.7           |
| Area                                       | other  | 10        | 2.0            |
|  | Southern China   | 326       | 64.2           |
|  | North of China   | 182       | 35.8           |

### 3.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일반적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탐색적 연구에서는 0.5~0.6 정도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기초연구에서는 0.8 정도면 바람직하며 특정한 검증연구에서는 0.9 이상이어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Nunnally, 1978).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모든 0.8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측정도구로 간주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는 본 연구모형에서 고려되고 있는 변수들은 모두 신뢰도 기준값인 0.6 이상으로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할 때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 직각회전 방식(varimax orthogonal rotation)을 사용하였으며 검정하였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7 이상인 문항만을 포함하여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제시된 5문항 모두가 적재되었고 독립변수인 총 6개, 각각 위험감수성 5개, 외향성 5개, 친화성 5개, 성실성 5개, 신경증 5개, 개방성 5개. 조절변수 창업교육은 5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적재되었다. 요인적재량은 모든 0.7 이상이며 KMO값은 .901으로 요인분석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성(reliability)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으로 계산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만 채택하여 따라서 확보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 Variable                                     | Factor loading | Extraction | Total | % of Variance      | Cronbach's Alpha | Cronbach's Alpha |
|--|----------------|------------|-------|--------------------|------------------|------------------|
| Risk-Taking Propensity                       | RT1            | 0.744      | 0.629 | 3.520              | 8.800            | 0.862            |
|  | RT2            | 0.805      | 0.705 |                    |                  |                  |
|  | RT3            | 0.806      | 0.708 |                    |                  |                  |
|  | RT4            | 0.728      | 0.589 |                    |                  |                  |
|  | RT5            | 0.768      | 0.628 |                    |                  |                  |
| Extraversion                                 | E1             | 0.774      | 0.647 | 3.514              | 8.784            | 0.880            |
|  | E2             | 0.823      | 0.722 |                    |                  |                  |
|  | E3             | 0.834      | 0.725 |                    |                  |                  |
|  | E4             | 0.771      | 0.643 |                    |                  |                  |
|  | E5             | 0.791      | 0.661 |                    |                  |                  |
| Agreeableness                                | A1             | 0.788      | 0.659 | 3.417              | 8.542            | 0.841            |
|  | A2             | 0.743      | 0.613 |                    |                  |                  |
|  | A3             | 0.733      | 0.595 |                    |                  |                  |
|  | A4             | 0.728      | 0.578 |                    |                  |                  |
|  | A5             | 0.779      | 0.650 |                    |                  |                  |
| Conscientiousness                            | C1             | 0.705      | 0.568 | 3.359              | 8.398            | 0.827            |
|  | C2             | 0.740      | 0.590 |                    |                  |                  |
|  | C3             | 0.744      | 0.609 |                    |                  |                  |
|  | C4             | 0.717      | 0.589 |                    |                  |                  |
|  | C5             | 0.788      | 0.657 |                    |                  |                  |
| Neuroticism                                  | N1             | 0.745      | 0.634 | 3.323              | 8.307            | 0.853            |
|  | N2             | 0.737      | 0.616 |                    |                  |                  |
|  | N3             | 0.728      | 0.624 |                    |                  |                  |
|  | N4             | 0.767      | 0.654 |                    |                  |                  |
|  | N5             | 0.792      | 0.656 |                    |                  |                  |
| Openness                                     | O1             | 0.717      | 0.589 | 3.153              | 7.882            | 0.837            |
|  | O2             | 0.757      | 0.628 |                    |                  |                  |
|  | O3             | 0.765      | 0.661 |                    |                  |                  |
|  | O4             | 0.707      | 0.596 |                    |                  |                  |
|  | O5             | 0.836      | 0.799 |                    |                  |                  |
| Entrepreneurial intention                    | EI1            | 0.794      | 0.787 | 3.110              | 7.774            | 0.915            |
|  | EI2            | 0.750      | 0.752 |                    |                  |                  |
|  | EI3            | 0.769      | 0.744 |                    |                  |                  |
|  | EI4            | 0.747      | 0.758 |                    |                  |                  |
|  | EI5            | 0.748      | 0.693 |                    |                  |                  |
| Entrepreneurs hip education                  | EE1            | 0.789      | 0.653 | 3.063              | 7.658            | 0.889            |
|  | EE2            | 0.816      | 0.703 |                    |                  |                  |
|  | EE3            | 0.799      | 0.656 |                    |                  |                  |
|  | EE4            | 0.801      | 0.658 |                    |                  |                  |
|  | EE5            | 0.888      | 0.829 |                    |                  |                  |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            |       | Approx. Chi-Square | 10362.896        |                  |
|  |                |            |       | df(p)              | 780 (.000)       |                  |
| Kaiser-Meyer-Olkin .901, Cumulative: 65.776% |                |            |       |                    |                  |                  |

표본의 기술적 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위험감수성은 평균이 3.79, 표준편차 .941, 외향성은 평균이 3.84 표준편차.996, 친화성은 평균이 3.68 표준편차.940, 성실성은 평균이 3.75 표준편차.906, 신경증은 평균이 3.69 표준편차.981, 개방성은 평균이 3.90 표준편차.824, 창업의도는 평균이 3.84 표준편차 1.027 창업교육은 평균이 3.44 표준편차 1.077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정규성 분포를 보는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는 일반적으로 표본의 확인하는 기준은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이면 되고 첨도는 4 이하로 정규성이라고 지적했다(Hong, Malik, Lee, 2003).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인 모든 1이하로 나타나 표본은 정규성 분포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기술적 통계는 정규분포임이 확인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n=508)**

| Variable                    | Mean              | Std. Deviation | Skewness | Kurtosis |        |
|-----------------------------|-------------------|----------------|----------|----------|--------|
| Risk-Taking Propensity      | 3.79              | .941           | -0.611   | -0.627   |        |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 Extraversion      | 3.84           | .996     | -0.691   | -0.576 |
|                             | Agreeableness     | 3.68           | .940     | -0.474   | -0.772 |
|                             | Conscientiousness | 3.75           | .906     | -0.610   | -0.613 |
|                             | Neuroticism       | 3.69           | .981     | -0.526   | -0.817 |
|                             | Openness          | 3.90           | .824     | -0.670   | -0.227 |
| Entrepreneurship intention  | 3.84              | 1.027          | -0.771   | -0.398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3.44              | 1.077          | -0.474   | -0.895   |        |

설정된 가설검정에 하여 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위험감수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과 창업의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4> 와 같다. 위험감수성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 < 0.01$ ), 성격특성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 < 0.01$ ). 종속변수 창업의도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 < 0.01$ )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4. 상관성

**Table 4.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 Variable                   | Risk-Taking Propensity | Extraversion | Agreeable-ness | Conscientiousness | Neuroticism | Openness | Entrepreneurial intention |
|----------------------------|------------------------|--------------|----------------|-------------------|-------------|----------|---------------------------|
| Risk-Taking Propensity     | 1                      |              |                |                   |             |          |                           |
| Extraversion               | .174**                 | 1            |                |                   |             |          |                           |
| Agreeable-ness             | .141**                 | .231**       | 1              |                   |             |          |                           |
| Conscientiousness          | .191**                 | .242**       | .275**         | 1                 |             |          |                           |
| Neuroticism                | .274**                 | .167**       | .273**         | .310**            | 1           |          |                           |
| Openness                   | .230**                 | .125**       | .227**         | .158**            | .293**      | 1        |                           |
| Entrepreneurship Intention | .394**                 | .433**       | .387**         | .416**            | .401**      | .311**   |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가설 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단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1의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 유의성 검증 결과의  $F=67.590, (p<.001)$ . 창업의도에 대한 위험감수성과 성격특성의 설명력  $R^2$  값은  $.441(p<.001)$ 으로 통계적 정(+)의 유의수준에서 나타나고 위험감수성의 표준화계수 $\beta$ 의 값은  $.217, T$ 값인  $6.136(p<.001)$  정(+)의 유의수준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가설1 위험감수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되었다.

독립변수 간의 VIF값은 모두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격요인 표준화계수  $\beta$  값은  $.563, t$ 값은  $4.795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결과를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성격5요인 표준화계수 값은 외향성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268, t$ 값은  $15.966(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를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친화성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173, t$ 값은  $4.795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결과를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성실성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196, t$ 값은  $5.392 (p<.001)$ 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신경증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156, t$ 값은  $0.156(p<.001)$ 로 통계적으로 정(+)의 결과를 나타나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개방성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111, t$ 값은  $3.120(p<.001)$  나타난 결과는 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개방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 Variable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 Standardized Coefficients |          | Collinearity Statistics |       |
|------------------------|-----------------------------|------------|---------------------------|----------|-------------------------|-------|
|                        | B                           | Std. Error | Beta                      | t        | Tolerance               | VIF   |
| (Constant)             | -0.793                      | 0.242      |                           | -3.283** |                         |       |
| Risk-Taking Propensity | 0.237                       | 0.039      | 0.217                     | 6.136**  | 0.880                   | 1.136 |
| Extraversion           | 1.002                       | 0.063      | 0.563                     | 15.966** | 0.895                   | 1.118 |
| Agreeableness          | 0.277                       | 0.036      | 0.268                     | 7.643**  | 0.897                   | 1.115 |
| Conscientiousness      | 0.189                       | 0.039      | 0.173                     | 4.795**  | 0.846                   | 1.182 |
| Neuroticism            | 0.222                       | 0.041      | 0.196                     | 5.392**  | 0.834                   | 1.199 |
| Openness               | 0.163                       | 0.039      | 0.156                     | 4.179**  | 0.792                   | 1.262 |
|                        | 0.139                       | 0.044      | 0.111                     | 3.120**  | 0.868                   | 1.151 |

$R^2=.669^a$  Adj.  $R^2=.447$ , Adjusted R Square.441  $F=67.590, p=.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첫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Hayes교수가 개발한 Process 3.3을 활용하여 신뢰구간 추정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Process 3.3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Hayes, 2017).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6과 같다. 첫째,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의 부트스트랩 샘플을 5000번으로 설정하여 상호작용 항의 95%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고,  $R^2$ 값이 19.24% 증가하였을 때  $F=40.012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의도를 투입하여 위험감

수성과 창업의도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둘째, 성격요인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항의 95% 신뢰구간 하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sup>2</sup>가 55.80% 증가할 때 F=212.0602,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정(+)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성격5요인 중 외향성 성격과 창업교육의 R<sup>2</sup>가 25.55% 증가할 때 F=57.6647,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을 투입하여 외향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4-1은 채택되었다.

셋째, 성격5요인 중 친화성 성격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의 95%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sup>2</sup>가 22.64% 증가할 때 F=49.1675,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화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을 투입하여 외향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H4-2은 채택되었다.

넷째, 성격5요인 중 성실성 성격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의 95%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sup>2</sup>가 23.78% 증가할 때 F=52.4089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을 투입하여 외향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H4-3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넷째, 성격5요인 중 신경증 성격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의 95%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sup>2</sup>가 23.93% 증가할 때 F=52.8594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을 투입하여 외향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H4-4은 채택되었다.

여섯째, 넷째, 성격5요인 중 개방성 성격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의 95% 신뢰구간 상한선(LLCI)과 상한선(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며, R<sup>2</sup>가 18.39% 증가할 때 F=37.8573 P<0.01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절변수인 창업교육을 투입하여 개방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4-5은 채택되었다.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 Hypotheses | Approach   | Variable                    | Coeff  | t          | LLCI   | ULCI   | Statistics                                     | Result |
|------------|--|-----------------------------|--------|------------|--------|--------|--|--------|
| H3         | Risk-Taking Propensity → Entrepreneurship intention      | constant                    | 3.7956 | 88.6619**  | 3.7115 | 3.8797 | △R <sup>2</sup> .1924<br>F=40.0122<br>P=.0000  | Adopt  |
|            |  | Risk-Taking Propensity      | .4110  | 8.9232**   | .3205  | .5014  |  |        |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1334  | 8.9232*    | .0537  | .2131  |  |        |
|            |  | Interaction term            | .1576  | 4.0020**   | .0802  | .2349  |  |        |
| H4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 Entrepreneurship intention | constant                    | 3.7967 | 123.9788** | 3.7365 | 3.8569 | △R <sup>2</sup> .5580<br>F=212.0602<br>P=.0000 | Adopt  |
|            |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 1.2188 | 22.5187**  | 1.1125 | 1.3252 |  |        |
|            |  | Entrepreneurship            | .1780  | 6.2015**   | .1216  | .2343  |  |        |

|      |   | education                  |        |           |        |        |  |       |
|------|---|----------------------------|--------|-----------|--------|--------|--|-------|
|      |   | Interaction term           |        |           |        |        |  |       |
| H4-1 | Extraversion<br>→<br>Entrepreneurship<br>intention      | constant                   | 3.8342 | 97.0545** | 3.7566 | 3.9118 | △R <sup>2</sup> =.2555<br>F=57.6647<br>P=.0000 | Adopt |
|      |   | Extraversion               | .4313  | 10.8591** | .3533  | .5094  |  |       |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2047  | 5.5478**  | .1322  | .2772  |  |       |
|      |   | Interaction term           | .1598  | 4.4186**  | .0888  | .2309  |  |       |
|      |   | constant                   | 3.8206 | 94.4700** | 3.7411 | 3.9000 |  |       |
| H4-2 | Agreeableness<br>→<br>Entrepreneurship<br>intention     | Agreeableness              | .4323  | 9.9447**  | .3469  | .5177  | △R <sup>2</sup> =.2264<br>F=49.1675<br>P=.0000 | Adopt |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1949  | 5.1518**  | .1206  | .2692  |  |       |
|      |   | Interaction term           | .2090  | 5.3559**  | .1323  | .2856  |  |       |
|      |   | constant                   | 3.8289 | 95.5943** | 3.7502 | 3.9076 |  |       |
|      |   | Conscientiousness          | .4619  | 10.4324** | .3749  | .5489  |  |       |
| H4-3 | Conscientiousness<br>→<br>Entrepreneurship<br>intention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2034  | 5.4043**  | .1295  | .2774  | △R <sup>2</sup> =.2378<br>F=52.4089<br>P=.0000 | Adopt |
|      |   | Interaction term           | .1801  | 4.4509**  | .1006  | .2595  |  |       |
|      |   | constant                   | 3.8203 | 95.2767** | 3.7415 | 3.8991 |  |       |
|      |   | Neuroticism                | .4182  | 10.1910** | .3376  | .4989  |  |       |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1790  | 4.7981**  | .1057  | .2522  |  |       |
| H4-4 | Neuroticism<br>→<br>Entrepreneurship<br>intention       | Interaction term           | .2059  | 5.5492**  | .1330  | .2788  | △R <sup>2</sup> =.2393<br>F=52.8594<br>P=.0000 | Adopt |
|      |   | constant                   | 3.8350 | 92.7786** | 3.7538 | 3.9162 |  |       |
|      |   | Openness                   | .4313  | 8.4088**  | 3.9162 | .5321  |  |       |
|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2072  | 5.3887**  | .1317  | .2828  |  |       |
|      |   | Interaction term           | .2320  | 5.2155**  | .1446  | .3194  |  |       |
| H4-5 | Openness<br>→<br>Entrepreneurship<br>intention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2072  | 5.3887**  | .1317  | .2828  | △R <sup>2</sup> =.1839<br>F=37.8573<br>P=.0000 | Adopt |
|      |   | Interaction term           | .2320  | 5.2155**  | .1446  | .3194  |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창업교육 지원과 위험감수성 및 성격5요인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창업가정신에 있는 위험감수성과 성격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감수성은 창업의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이 높아질수록 중국 대학생이 위험감수성 및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의 창업교육과정에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창업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필요하여 미래 대학생 창업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둘째, 성격 5 요인 중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교육은 조절변수로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에 대한 창업교육이 높아질수록 중국 대학생이 창업의도는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는 성격요인과 창업의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중국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향후 창업행위 선택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창업교육에 따른 수업으로 중국 대학생들에게 창업의도를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넷째, 현재 중국 정부는 대학생 창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교는 창업교육의 경우 과정의 운영 메커니즘에 문제가 많아 많은 학교는 창업과정은 없거나 운영은 활용하지 못한다. 창업의도를 함양할 수 있는 창업과정을 운영하면 진로상담에 대한 도움이 되며 대학생들이 미래 창업행위의 질과 양적으로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에게 인지된 창업교육 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지원을 통해 창업과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학생에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생의 창업률은 여전히 높지 않고 직업 대안은 창업으로 고려하는 수는 적다. 이런 현상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해 보면 학생들은 충분한 창업교육 지원을 확보하지 못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상자인 중국 대학생의 위험감수성과 성격요인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과 대학생의 창업의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기업가정신 문제 즉 위험감수성과 개인의 성격 5 요인은 최종창업 선택 행위에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위험감수성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여 다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서 있는 혁신성, 친취성을 함양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실시한 후에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에서만 있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세계적으로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일 뿐만 아니라 졸업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으로 조절효과를 통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연구주체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창업가정신이 창업에 대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연구는 본 논문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발전시키면 개개인에게 보다 풍부한 진로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정책,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ng, S. H. and D. G. P. Hong (2000), Entrepreneurial spirit among East Asian Chinese,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42(3), 285-309.

- Baek, Y. M. (2018), The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on Entrepreneurship of the College Student-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and Self-efficacy-*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37-144.
- Bahn, S. S., G. W. Bae and S. H. Jang (2013), The effects of individual invento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6(6), 2655-2677.
-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rockhaus, R. H. (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509-520.
- Chandler, G. N. and E. Jansen (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ina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21), Guidance on further support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of college students(accessed October 13, 2021).
- Cho, C. H., and D. W. Yang (2022),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f pre-entrepreneur on commit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7(5), 177-199.
- Choi, W. H., J. H. Park, and N. H. Kim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a university's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Chung, D. Y. and K. I. Park (2010),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which are mediated by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Conferences*, Vol. 11, No. 12 pp. 4780-4786.
- Chung, Dae-Yong and Yeon-Hee Chae (2016),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1), 85-110.
- Covin, J. G. and D. P. Slevin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3), 628-639.
- Debackere, K. and R. Veugelers (2005), The role of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in improving industry science links. *Research policy*, 34(3), 321-342.
- Drucker, P.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Environment Moderate the Market Orient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58(1), 46-55.
- Gartner, W. B. (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5-28.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Gurok, Y. and N. Atsan (2006),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mongst university student: some insight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in Turkey, *Education Training* 48(1), 25-38.
- Ha, K. S. and J. Y. Baek (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85-99.
- Han, K. S. (2007), The Systematization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47(1), 379-40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ublications
- Henderson, R. and M. Robertson (2000),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Young adult attitudes to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5(6), 279- 287.
- Hult, G. T. and D. J. Ketchen (2001). Does market orientation matter? A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onal advantage and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9), 899-906.

- Hyuk, K. and J. H. Im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Factors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tart-up Intention and Employment Possib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3), 1195-1208.
- Izedonmi, P. F. and O. Chinonye (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0 (6).
- Kim, C. H. and D. W. Yang (2018), The Effects of Teaching Competency of University'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21(3), 57-76.
- Kim, H. (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Jin-Hong (2021),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ors and Self-Direction on Entrepreneurship Through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6(1), 383-402.
- Kim, M. S. and Y. G. Kim (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 H., S. B. Kyoung, and J. C. Park (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T. (2018), A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the Students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 and Theory Centered Cla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49-58.
- Kirzner, I. M. (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Knight, F.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arper and Low.
- Ko, Yun-Seun (2019),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Factors of the Middle-Aged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KOREA SCIENCE & ART FORUM Vol.37\_Regular article or full pap.*
- Kraaijenbrink, J., A. Groen and G. Bos (2010), "What do students think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 given by their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9(1), 110-125.
- Kuratko, D. F. (2007),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Guest editor's perspective.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3(4), 1-11.
- Kuttim, M., M. Kallaste, Venesaar, U. and Kiis, A. (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0(0), 658-668.
- Lee, J. H. (2013), The influence effects of personal trait, university and social supports on student's startup.
- Little, B. (2014). Me, myself, and us: The science of personality and the art of well-being. Public Affairs.
- Lee, J. M. and S. K. Kang (2015), A Study on Factors Having Effect on the Turnover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1-163.
- Lee, J. S. and S. M.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A. and Y. S. Ahn (2018),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97-209.
- Lim, J. Y., G. M. Kim, and G. J. Ko, (2017),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traits, and need

-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3361-3377.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 770-791.
- Miner, J. B., N. R. Smith, and J. S. Bracker (1994), Role of entrepreneurial task motivation in the growth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firms: Interpretations from follow-up data.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4): 627 – 630.
- Mitchell, T. R. and D. Denis (2003), Motivation. *Handbook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Kuratko, D. F. and R. M. Hodgetts (2007), *Small Business Management*. NJ: Wiley.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22.6.15 The national economy recovered in May.
- Nunnally, J. C. (1978).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97-146.
- Oh, H. S. and M. E. Park (2021),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Educational motivation on the Expected perform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pplying a person-centered approach .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3), 179-202.
- Park, C. W. (2017), A study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BizCool)? assistan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1), 68-89.
- Park, N. G. (2020),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on Employment 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97-108.
- Park, J. S. (201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yp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1), 40-67.
- Park, Y. M. and A. Jeon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job-seeking stress during COVID-19: Focusing on prospective 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5(3), 111-123.
- Ronstadt, R. (1986), Exit, stage left why entrepreneurs end their entrepreneurial careers before retire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323-338.
- Slater, S. F. and J. C. Narver (1994), Does competitive environment moderate the market orient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58(1), 46-55.
- Vuca – world (2021), <https://www.vuca-world.org/>
- Soutaris, V., Zerbinati, S., and Al-Lahan,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s Raise Entrepreneurial ntenc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 Yang, J. H. (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ang, J. H. (2016), Self-Efficacy as Moderator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19(1), 17-35.
- Yoo, Bong-Ho (2015),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51-60.
- Yoon, B. S. (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factors”, *Korea Business Review*, 17(2), pp.89-110, 2004.

Zhao, H. and S. E. Seibert (2006),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entrepreneurial statu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2): 259–271.

Zhao, H., S. E. Seibert, and G. T. Lumpkin (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